

김정은 장군, 그이는 조선의 힘이다

지구도 들어올릴 조선의 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성공이 일으킨 거대한 충격과 감동의 파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주앉으면 조선의 불가항력을 만장악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르던 그날의 감동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다. 누구의 얼굴이나 강국의 공민이 된 궁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 승리의 신심과 미래에 대한 락관이 한껏 어리여있다. 초대형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성공으로 조선은 또 하나의 위력한 핵력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은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졌다. 이번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도 《이번 시험발사는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의 대성공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사일 한기로 뉴욕, 워싱턴 등 여러 대상에 대한 동시핵타격이 가능해졌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기술이 단기간내에 급성장하였다》, 《미국의 미사일요격체계를 뚫고 가해질 본토타격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평하고있다.

정말 《11월대사변》에 이어 조선의 절대적힘, 군사적강세를 과시하는 특대사변을 연속 이루어 나가는 공화국의 힘과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지금 공화국의 앞길에는 의연히 엄청난 시련과 난관들이 가로놓여있다. 이런 중첩되는 격난속에서도 공화국은 연속 역센 새



힘을 분출하고있다. 그 힘은 지구를 들어올리려고도 남을 역센 힘이다.

유리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민족의 신세는 초가집 울바자 옆에 켜 봉선화의 처량한 모습 그대로였다.

조선은 누구도 넘볼수 없게 되었다. 감히 넘본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것인가를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에. 최강의 보검을 켜 공화국과 민족의 앞길은 더욱 창창하게 되었다.

제시하시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4년만에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실현하는 눈부신 기적을 안아오시었다.

직접의 응결체로,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공화국전략무력의 핵심 타격수단으로, 민음직한 핵전쟁 억제수단으로 완성시켜오시었다. 시험발사전날인 3월 23일에는 《시험발사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할것.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 김정은 2022. 3. 23》

이라는 친필명령을 하달하시고 발사당일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지도해 주시었다.

이렇게 태어난 세계에서 제일 크고 위력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주체조선의 절대적힘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시어 10년.

반만년민족사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이 10년동안에 조선은 세계우에 더욱 우뚝 올라섰다. 조선의 강대한 힘은 이 행성을 통째로 뒤흔들고있다.

이 조선을 이끄시어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놓으신 철세의 예주자, 희세의 명장 김정은장군, 그이는 조선의 힘이다.

력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대사변의 날인 3월 24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위해 발사장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근엄하신 모습.

그 모습은 강대한 조선에 찬란한 미래에로 이끌어가는 최강자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였다.

그이께서는 《화성포-17》형 시험발사성공에 공헌한 국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반드시 강해서 그 어떤 위협도 받지 말고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나가며 후대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우리 민족의 수천년역사와 행성의 어제와 오늘이 남긴 귀중한 철리를 짧은 한마디에 담아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시던

철세위원의 이 뜻깊은 말씀. 이 세상 제일 강하고 위대한신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세계에 떨쳐지는 조선의 역센 힘이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도 있는것이니

우리 겨레는 그이의 특출한 업적과 은공을 천만년 길이길이 노래하게 될것이다. 허성철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

부국강병. 이 말은 우리 겨레가 오랜 세월 꿈으로만 간직하여온 소중한 부름이다.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한데다가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있는 지정학적위치를 하여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전란에 시달려온 조선민족이였다.

주변나라들이 서로 싸우면 가운데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우는 수난을 당해야 했다. 그러다가 종당에는 바다 건너의 오랑캐무리들에게 통째로 나라를 빼앗겨야 했다. 우리는 왜 남보다 크지를 못하

느냐. 우리는 왜 남보다 강하지 못하느냐.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식민지도 예살이를 하면서 우리 조선사람치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

부국강병은 바라고바라던 겨레의 념원이였으나 한갓 이룰수 없는 꿈으로만 되었고 《약소국》, 《약소민족》의 설움의 눈물은 삼천리조국강산과 이국의 광야들에 무수히 방울방울 떨어졌다.

힘이 약해 침략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칼에 찔리우고 총에 맞다못해 수십만의 념성들이 침략자들의 성노예가 되어 참혹하게

살아남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민족의 신세는 초가집 울바자 옆에 켜 봉선화의 처량한 모습 그대로였다. 민족의 가슴마다에 세기를 이어, 세대를 이으며 사무쳐온 이 한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명도하신 항일대전의 승리의 총성과 더불어 씻겨져지고 겨레가 바라고바라던 부국강병의 념원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하나둘 빛나는 현실로 꽃피어왔다.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천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를 맞고 세상이 알지도 보지도 못한 초대형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보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다.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자기 손에 들어온 강대한 조

세계년년 길이 찬양할 민족의 은인

누가 조선의 힘, 민족의 힘을 이처럼 최대로 키워주셨는가.

그이상은 조선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탁월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경애하는 그이는 이 행성에서 제일 강한분이다.

국가의 힘, 민족의 힘을 키운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제압살책동, 그속에서 자체의 힘을 부단히 키우자면 보통의 담력과 의지를 가지고서는 어렵도 없다. 그러나 조선은 자위적군력강화

의 길에서 추호도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자기가 선택한 자력부강의 한길로 온갖 력사의 돌풍을 맞받아 힘차게 내달려왔다. 그 앞장에는 백두산악과 같은 역센 담력과 배짱, 기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계시었다.

경애하는 그이는 불가능도 가 능으로 만드시고 이 땅우에 전 변의 새 력사와 기적만을 펼쳐치 는 창조 의 거장이시이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의 주체관 조조건과 환경 그리고 세계적인 령도와 화성포의 급속한 변화 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2017년 한해에만도 이 땅우에서는 그이의 탁월한 령도밑에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과 같은 국가핵무력건설에서 거대한 의 의를 가지는 사변들이 온 행성을 뒤흔들며 다계단으로 일어났다.

이번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성공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희생적인 헌신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 민족의 천만년 밝 은 미래를 더욱 굳건히 담보하게 될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사 업을 최종대시하시고 매일과 같 이 세심한 지도와 방향을 주시며 《화성포-17》형 무기체계를 주체

수자에 비끼 무한한 헌신의 세계

누군가가 말하기를 수자는 랑정하고 메마른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어느날 시인과 수학자가 함께 떠오르는 장쾌한 해돋이를 바라보게 되었다.

시인은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해를 바라보며 자기의 감정을 풍부한 언어들과 명문장으로 묘사하였다.

하나 수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 《2πr》, 이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흔히 사람들은 수학자는 수자처럼 딱딱하다, 메마르다, 감정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하나 수자가 결코 메마름과 랑정함의 상징이 아님을, 무한대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도 펼쳐보일수 있는 뜨거움의 상징임을 알게 해주는 나라가 있다.

인민을 위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무한대한 헌신과 사랑의 세계를 보여주는 일

마나 많은 수자들이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뜨겁게 간직되어 있는것인가.

로동당시대 문명창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특색있는 인민봉사까지 양덕은천문화휴양지를 가장 훌륭하게, 완벽하게 일떠세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해주시신 형성안은 무려 2 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뿐이였던가. 삼지연시를 현대적인 산간도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본보기로 꾸리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8 800여건이나 되는 형성안을 지도하여주시었고 인민들이 《물의 궁전》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사시장철 찾아가는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도 무려 113건이나 보여주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건설주가 되시고 시공주가 되시려는 그이의 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 수자들이 전하는 사

연을 어찌 뜨거운 말이나 문구로 대신할수 있겠는가. 언젠가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현지도의 길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신 일이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있는데 한손에는 책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들까지 들고 가느라 불편하게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아홉, 여덟, 일곱...》 거대한 새형의 미사일의 발사 순간을 위해 울리는 구령소리, 온 나라, 아니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귀기울여 듣는 그 수자들이 울리는 매 순간순간은 천만마디 뜨거움과 격정의 언어로도 표현할수 없는 격동과 환희의 순간이었다.

그리시고는 자신께서 연구하시던 100여메지나 되는 가방생산과 관련한 참고자료들을 해당 부문에 보내주시고 몸소 가방도안가, 제작자가 되시어 도안만 해도 450여건이나 보여주시었다.

부모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들의 불편한 점까지 헤아려 주시는 그이의 사랑은 정말이지 천문학적수자로도 계산될수 없는 무한대한 세계인것이다.

얼마전 공화국에서 온 행성을 진감시키며 진행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의 대성공도 그렇게 안아온것이다.

《아홉, 여덟, 일곱...》 거대한 새형의 미사일의 발사 순간을 위해 울리는 구령소리, 온 나라, 아니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귀기울여 듣는 그 수자들이 울리는 매 순간순간은 천만마디 뜨거움과 격정의 언어로도 표현할수 없는 격동과 환희의 순간이었다.

그 순간순간은 비록 짧았지만 어버이의 헌신과 로고의 기나긴 령정이 다 담겨진 벽찬 시간이었다.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사의 강행군길에 서슴없이 한몸 내대신 어버이의

헌신과 로고의 자육자육을 눈물속에 격정속에 돌이켜보게 한 순간이였고 또다시 하늘에 닿을 이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가슴뭉듯이 느끼게 하는 환희의 순간이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눈부신 화광이 지면을 불덩이같이 달구며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은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최대정검고도와 상승거리, 비행한 시간들의 수자들은 고도로 정밀화되어있었다.

사랑하는 인민의 존엄을 최절정에 떠올리시기 위하여, 공화국의 힘을 세계민방에 떨쳐주시려고 사생결단의 협력을 한 치도 한치 열어가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가 이 수자들에 어리어 인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이 수자들은 떠오르는 해를 향해 터치였다는 시인의 언어나 표현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풍부한 감정을 추가하고있다고 본다.

《조선에서 화성포가 날아오른 순간은 누리를 밝히는 해돋이순간보다 더 장쾌했다》고 한 어느 한 인터넷에 실린 외국인의 격정의 찬란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위인의 사랑과 헌신의 세계는 결코 시와 언어로만 표현되는것이 아니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헌신과 로고, 심혈과 사색이 어려 있는 수자들은 그대로 위대한 헌신과 사랑의 서사시, 서정시, 혁명실록이 되어 철세위원의 불멸의 업적과 인민사랑의 세계를 세상에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3월 24일 위대한 승리의 날이여!

김태룡

승리, 위대한 승리이다 이 행성을 밀뿌리채 뒤흔들며 무변광대 우주로 힘껏 대지를 박차고 기세차게 날아오른 《화성포-17》형 인민이여! 력사의 이 쾌거 목청껏 누리어 만세로 터치라

도 한번 세계가 조선의 불가항력을 똑똑히 절감한 특대사변의 날 피줄로 내뻗치는 이 격동 유감없이 뿜어 웨치고싶건만 만세로만 터칠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이여

지금도 저 창공을 바라다보면 《화성》의 비행운 금시 보여올듯 싶구나 3월 24일 그날은 가슴에 고메치는 열면 흥분으로 오늘도 우리 심장의 피 끓여주누나

하늘이여, 너 자랑찬 《화성》을 품으려 그날따라 그리도 푸르청청하게 우리의 머리우에 펼쳐진것 아니더냐 《화성포-17》형이 솟구쳐오른 우주오, 그날은 온 우주가 조선의것이 된 날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

행의 성공! 이는 원수님 지니신 무적의 힘 그 강대함의 눈부신 패승이다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우선 강해지고보야 한다고 하시던 그 의지 그 신념의 위대한 승리이다

오, 전장에서 개신하시듯 화염길은 발사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돌아오시던 장군의 모습 우리를 한사코 건드리려 설쳐대는 제국주의괴수의 야망을 짓밟으신 위풍당당 최강자 민족의 영웅이시여

백승의 령장 그이 계시어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우리의 《화성》들은 우주로 날아오르리라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세계 다름아닌 우리의 《화성》이 그 폭제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으려니

오, 우리의 걸출하신 장군께서 강대함의 최절정에 오른 조선의 힘 철대의 힘을 력사에 증명하신 날 이여 3월 24일 이날엔 있어라 후손만대 영원히 무궁강대할 내 나라의 미래 승리의 천만년이

